

## ‘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2주년 맞다



‘발명하는 사람들’이 창간 2주년을 맞이했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마인드 제고 및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발명인의 권익 옹호, 범국민적 발명 생활화 운동의 전개, 발명인과 기업간의 연계 추진, 발명기업인 및 업체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많은 발명인을 위해 발로 뛰며 생생한 정보와 뉴스들을 제공해왔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조하고, 참여정부 역시 과학기술을 중시하여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면 서도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하기 때문에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위해 발명 강국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발명하는 사람들의 창간 2주년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2년간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계를 대변하고 발명인의 창조적인 발명활동에 힘을 실기 위해 부족

하나마 열심을 다했고, 이제 그 노력을 알아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3년, 6년, 10년이 흐를 때마다 발명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2년 7월 1일자로 창간되어 발명계를 대변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해오고 있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여성단체, 기업체,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학교 발명동아리와 초·중·고교 발명교실에 배포되고 있다.

### 창간 2주년 기념 축하

발명가 나침판 역할하는 일류 정보지 되기를...



하동만 특허청장

‘발명하는 사람들’의 창간 2주년을 축하 청 전체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명현장에서부터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생활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와 측우기를 발명했고, 오늘날에도 256메가 D램, 1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창의력을 지닌 발명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선진국이 200년 넘게 걸쳐 달성한 1만달러 소득을 30여년 만에 이루어 냈고,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적 지식과 정보,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는 인류의 사회 문화까지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비쿼터스의 21세기는 바로 발명인 여러분의 시대가 되어야 하며, 그 매개체가 ‘발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발명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쉽게 만드는 창조인 것입니다. 특히 발명활동에는 풍부한 감성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디슨이나 장영실과 같은 대발명가를 키워낸 어머니로서, 발명에 필요한 풍부한 소질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발명가로서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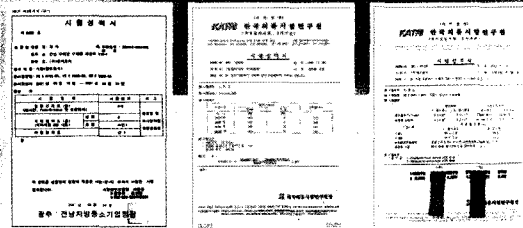
발명과 성장의 동기부여를 위한 촉매제로서 ‘발명하는 사람들’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발명하는 사람들’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고 발명인 모두와 한국여성발명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취급제품 침구류, 속옷류, 커튼류, 입부복, 기타 소품류 등 섬유제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롭고 현명했던 황토사랑을  
오늘에 맞게 연구 개발한 황토천연염색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황기모아의 천연염색 제품은 정균률(99.9%), 살균률(99.9%), 소취율(100%)이 탁월하며, 염의 흡수 및 배출이 용이하여 언제나 상쾌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기모아**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473-1  
TEL (061)783-5515, 5942  
FAX (061)783-5861